

춘향제 이틀째... 관광객에 '눈길'

춘향제항에 수백명 채워져

춘향제가 2일째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2일째 오전 10시 30분에 거행된 춘향제항에는 수백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관중석을 채우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향을 관망했다. 제향은 여성제관(남원시립국악단원)들이 참여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이 제관인 제향은 춘향제항이 유일하며, 춘향사당에 있는 춘향이가 1년에 한번 외출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남원 춘향제가 2일째를 맞아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사진은 춘향제항.

3일째인 10일에는 주 무대인 관한루원과 요천 일원에서 각종 축제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발걸음과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월교 무대에서는 전통국악 공연 '5색 춘향가'와 현대국악 '공주유회'가, 광한춘몽 콘서트 Part에는 가수 박상민과 마야, 남성 4인조 그룹 덕평스가 출연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

습씨를 뽑내는 달빛춤(22시)이 펼쳐진다.

주말에는 코미디 춘향전(11시, 완월정 앞), 신영희·김소영·김세미 명창이 함께하는 판소리, 보물위에 서다(11일 13시, 15시 관한루각), 통기타 라이브방송(11일 17시30분, 어울림다

당) 공연이 춘향제의 열기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일 펼쳐지는 남원시민 화합 한마당(저녁 8시)에는 가수 장운정, 김연자, 김혜연, 정하, 현진영, 성진우, 그룹 엔플라잉, 카릴라 등이 출연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유해 외래어종 퇴치... 임실군, 청정 옥정호 지키기 총력 사수

임실군이 옥정호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유해 외래어종 퇴치에 발 벗고 나선다. 9일 군에 따르면 옥정호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된 블루길, 큰입배스, 블루길 등을 퇴치하는 옥정호 유해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이달부터 9월까지 시행한다.

총 저수량은 4억6천만 톤에 달하는 국내에선 일곱 번째로 큰 호수다. 옥정호는 봄과 가을이면 물안개로 절경을 이루며, 지역민들은 물론 전주와 광주 등 인근 도시민들과 전국에서 온 관광객 등 연간 8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찾는 전라북도 대표 관광명소다. 군은 깨끗한 옥정호 수질보호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를 위해, 유해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해마다 시행하고 있다. 외래어종은 토종어류의 치어와

알을 먹어치워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들 어종은 일부 군민들이 방생하거나 상류 유역에 방사한 하천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심민 군수는 "옥정호는 세계적 내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섬진강의 깨끗한 수질과, 건강한 하천과 청정 옥정호로서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한마음... 순창군, 유통업체들과 사용억제 위한 협약식

순창군이 관내 유통업체 관계자들과 한 마음으로 1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나섰다. 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유통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순창군은 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유통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노홍래 부군수를 비롯해 대형 유통마켓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1회용품 사용줄이기에 적극 동참하며, 플라스틱 만들기 등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유통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 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유통업소의 매장내 판매 물품에 대한 과대포장 축소와 1회용품 사용 최소화, 비닐봉투 사용규정

준수, 장바구니 사용 적극 장려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유통업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상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매장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대하여 종류별과 색상별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 재활용 노력을 다할 것도 결의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이 사회로부터 열고 있다.

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 '큰 호응'

순창군, 작년보다 이용률 크게 늘어나

순창군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사업이 지난해 대비 이용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사회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 인원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연인원 2만2,600명에 실인원 825명이었으나, 시행한지 2년이 지난 현재는 연인원 2만8,800명에 실인원 858명으로 작년대비 27%가 늘어났다. 예산도 5,6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 않는다. 특히 읍지주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목욕탕 이용료는 면단위에서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작은목욕탕을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순창읍 주민 이정순씨(82, 여)는 "지원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다녔는데 지원하고 나서 주 2회를 다니다 보니 몸에 냉증이 없어졌다"면서 "손, 발, 허리 부분의 통증도 감소되고, 목욕탕에 온 다른 할머니들과 대화도 나누니 보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붓기를 빼주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인 1~3급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대중목욕탕 이용 시 이용료의 34%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실제로 목욕료 5,500원 중에서 군 보조금과 목욕탕 업주 부담을 제외하고 주민들은 해당 2,000원의 비용만 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목욕탕 지원 횟수는 1인당 주 2회 월 8회 한도에서 지원하고, 한 어르신 6월부터 8월까지의 지원되

고 말했다. 황숙주 군수는 "목욕료 지원사업은 순창읍 65세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산간을 편리하게 목욕탕을 이용해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한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대상자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의회 임시회 개최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9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국실과원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까지 7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황일권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대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도 군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고 합리적인 의사심사와 원만한 회의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황일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기계 구매 시 외국산 제품을 지양하고 국내 기업제품으로 우선구매해 줄 것과, 우리지역에도 농기계를 수리 또는 판매하는 농기계업체가 있는 만큼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 업체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와 각종 대기오염 등 예측할 수 없는 일기불순으로 항토목 거리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 항토목 종목거리 생산을 장려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용 소형 건조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확대와 노인일자 리 창출 등 임실농정 추진 방향을 제안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협약

남원시보건소는 웰다잉 문화조성 및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진을 위해,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남원시보건소나 건강보험관리공단 남원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중국 염성시 우호 방문단 방문

남원시는 제89회 춘향제 기간인 8일 부터 10일까지 중국 염성시 대표단이 방문한 가운데, 우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남원시와 염성시는 그동안 문화교류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으며, 이번 방문단은 남원시 김동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교류확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2박 3일 동안 관한루원, 숲철공

예관, 남원예촌, 김병중 미술관, 백두대간 전시관 등 남원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지를 관람하며, 남원의 맛과 멋 등 다채로운 문화를 체험했다. 한편 김동규 남원시 부시장은 "양 도시는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가치를 공유하는 자매도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와 신뢰의 초석을 다진다면 공동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